

## 저고리 세부구조의 발생과 그 형태변화에 대한 연구 (제2보)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채 금 석<sup>†</sup>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전공

### Development of the Structure and Changes of the Jeogori (Part II) -Focused on Goryeo Era-

Keum-Seok Chae<sup>†</sup>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6. 1. 13. 접수)

#### Abstract

Most of the proceeded research of jogories in the Goryeo era are about the total clothing system of the men and women's dress and not many have studied of the developing process of the jeogories specific structur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origin and the alteration of a git, gil, seop and gorem which forms a jeogori after the Unified Shilla era. The range of this study os from 918 to 1392, Goryeo era and 80 pieces 7 portraits and 5 Buddhist relics were for references. This study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oat git, gil, seop, somae and gorem forms the Goryeo era's jeogori. Second, as the length of the joegori got shorter then the past, the ryeongem also got shorter and changed to an oatgit. Third, as most of the opening side of the jeogori started to fix on the right. Forth, an extra cloth attached on the gil develops a seop that be originates in Unified Shilla when get shoter. Fifth, there were wide and very long sleeves that came all the way down to the hand, narrow sleeves and long sleeves. Sixth, Goryeo era's jeogori had ribbons and cloth buttons to fix the form instead of a belt.

**Key words:** Jeogori, Goryeo dynasty, Oat git, Seop, Gorem; 저고리, 고려시대, 깃, 셀, 고름

#### I. 서 론

한복·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가운데 시대를 통해 가장 세부구조에 변화가 많았던 것은 저고리이다.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까지의 저고리(襦)는 상고시대 관두의형의 皮衣(杉本正年, 1979)에서 발달하여 여기에 직사각형 소매를 달고 막혀있던 앞부분이 前開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중앙아시아 북방계 카프탄 형의 전형임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cks9312@sookmyung.ac.kr

본 연구는 2005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다. 통일신라 이후 저고리 세부구조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여 고려 1300년대의 인물초상화, 불복장유물을 통해 고려시대의 저고리는 삼국시대의 저고리와 그 세부 구조에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저고리는 다양한 디태일로 변화되어 왔는데 좁은 면적에 형성된 섬세한 면분율과 다양한 색상대비에 의해 나타나는 조화로운 구성 미는 세계 그 어느 민족의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감각이 돋보인다. 이는 우리 한복의 세계화를 위한 디자인 코드로 활용할 보고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저고리 세부구조의 발생과정을 再考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고려시대 저고리 구조는 오늘날의 저고리의 형태를 탄생시킨 원형이

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부구조가 어떠한 과정에 의해 발생·변화되었는가를 살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려시대 복식에 대한 그 간의 선행 연구는(김동욱, 1979; 김문숙, 이순원, 2001; 김문자, 1998; 백영자, 1993; 성보문화재연구원, 1997; 유희경, 1974; 이경자, 1978; 임명미, 1996; 채금석, 1987) 주로 고려시대 남·녀 복식 전반에 대한 것이거나, 관복 혹은 착용 양식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우리 국속의 ‘저고리’를 중심으로 디자인의 측면에서 그 세부구조의 발생과 변화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려시대(918~1392)를 연구범위로 하여 통일신라期 이후 저고리 세부구조의 변화과정을 살펴서 현재의 저고리 구조를 이루는 것, 셋, 고름의 발생원인과 변화과정을 살펴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 실증 자료는 고려불화 80점, 인물초상화 7점, 불복장유물 7점, 벽화 2점을 참고로 하였다.

## II. 저고리 형태

고려시대 저고리를 구성하는 세부구조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 통일신라기에 그대로 답습된 삼국시대 저고리의 형태와 구조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 1. 삼국시대 저고리의 형태와 구조

삼국시대 저고리의 형태는 총 4종류로 <그림 1> 앞여밈이 앞 중심선을 지나 옆선까지 연결되는 형(4C), 앞 중심선에서 여며지는 형(5C), 가선(領衿)이 없는 형, 반수의 형으로 접약된다. 앞 중심선을 지나 옆선까지 연결되는 저고리 여밈 형태는 5세기경에 와서 그 여밈이 점차 중심선으로 변화되었다(채금석, 2005).

고구려시대 저고리는 둔부선 길이가 대부분으로 좌·우임이 모두 보이고 목둘레에서 도련선 밑단까지 이어지는 평금(領衿)(채금석, 2005)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여밈수단으로 허리에 대를 매었다. 백제·신라의 저고리는 토우, 도상 등을 통해 고구려시대 저고리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채금석, 2005). 삼국시대 복식을 그대로 답습한 통일신라시대 저고리는 길이나 형태를 자세히 구분할 수 없으나 무릎선까지 내려오는 긴 저고리 형태가 보이며, 여밈 부분에 직령과는 다르게 미세한 곡선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채금석, 2005).

### 2. 고려시대 저고리

고려의 복식제도에 관한 기록으로 ‘고려사(高麗史)’에 고려 초기에는 신라의 복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다가 의종대에 와서 모든 제도가 갖추어졌다 고 되어있다. 또한 그 변천과정에 대해 우리 고유 복식에 당제와 송제의 영향을 받은 시기, 원의 쇠망으로 인한 명나라 복식의 영향을 받은 시기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지배층 관인계급에 있어서의 제도상의 변천일 뿐, 폐지배층인 서민들에 있어서는 우리 고유 복식을 그대로 답습해왔다.

#### I) 저고리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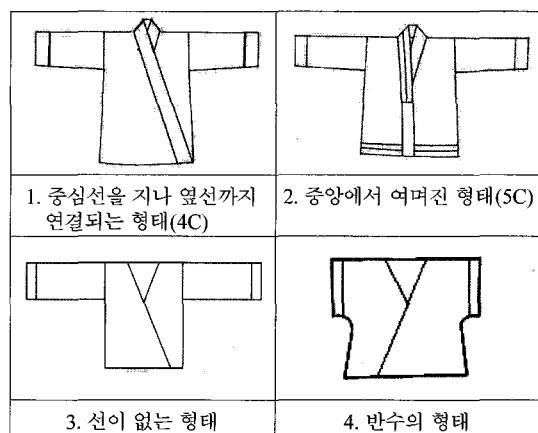
##### (1) 의(衣)

고려시대는 저고리에 관한 문헌기록이 희소하고 저고리에 대한 별다른 기록을 찾을 수 없으나, 고려도경의 衣라는 표기(유희경, 김문자, 1998)를 볼 수 있다. 衣의 명칭 중 부의(襖衣), 유의(裯衣), 포의(褒衣) 등이 선비들이 즐겨 착용하는 길이가 긴 두루마기형 복식의 명칭이고 단의(短衣), 유의(襦衣)가 저고리형 복식을 지칭한 것이다(김문숙, 이순원, 2001).

##### (2) 삼(衫)

고려시대 衣와 삼은 길이가 비교적 짧은 저고리형의 복과 길이가 긴 두루마기형 의복 모두 지칭한다. 다만 중국에서 의는 겹옷을, 삼은 훌옷을 지칭하여 고려에서도 그와 같이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김문숙, 이순원, 2001).

악학궤범에는 기녀복식에서 남적고리(藍赤古里), 한삼(汗衫) 등의 용어가 발견되지만 악학궤범이 조선



<그림 1> 삼국시대 저고리의 형태

초기에 편성되었으므로 고려시대의 명칭을 그대로 쓴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아미타불 복장유물에 적삼(赤衫) 혹은 적삼(赤衫)으로 표기되어진 것으로 보아 상고시대와 같이 삼이라는 용어가 저고리로 사용되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 (3) 유(襦), 갈(褐)

유와 같은 모두 저고리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유’는 일반적으로 저고리와 바지의 일습에서의 저고리를 지칭하고 ‘갈’은 좋지 않은 옷을 지칭할 때 사용하였다. 따라서 같은 문헌에서 그 재질의 기록은 없으나 알려진 바와 같이 마포나 모직으로 만들어진 복식으로 추측되고 유는 다양한 직물과 가죽이 사용되었다(김문숙, 이순원, 2001).

이하 본 연구에서는 발목 길이의 포 이외의 상의는 모두 저고리로 통칭하고자 한다.

### 2) 유물을 통해 본 저고리 형태

옛 기록을 통한 고려 복식은 중국 송나라 사신이었던 서궁이 쓴 “고려도경”과 “고려사·여복지”에서 겨우 그 일단을 찾아볼 수 있다. 고려시대는 불교의 융성으로 불화가 발전하였으며, 특히 고려불화는 그 시대의 현실 상황을 토대로 그렸으므로 권속이나 중생들의 복식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드물기는 하지만 당시의 인물 초상화, 불복장유물을 통해서도 고려 저고리의 형태와 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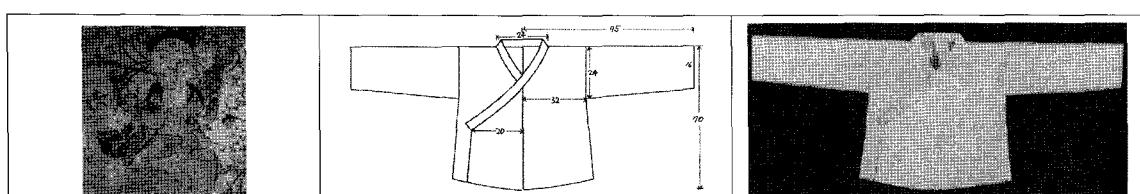
현존하는 불복장유물, 고려불화, 인물초상화, 벽화를 중심으로 그 연도순으로 저고리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저고리를 재현하였으며, 재현 시 실물이 아닌 벽화 등의 그림자료에 의한 복원의 치수는 문헌을 통한 인류학적 고찰을 통해 고려시대인들의 신체특성을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2>의 12세기 초로 추측되는 경남 거창에 있는 둔마리 고분벽화의 동방 서실 벽의 여신상의 복식

은 황색 바탕의 저고리와 포를 입고 있으며, 저고리 위에 치마를 입고 표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 통일신라의 복식과 유사하다(유희경, 김문자, 1998). 착용양식으로 보아 고려 12세기 초까지는 당의 영향을 받은 통일신라기의 복식이 그대로 습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판단되는데 저고리 위 허리선에 치마를 착용하는 방식에서 대를 매는 저고리형은 부적절했을 것이므로 통일신라기부터 저고리 여밈방식이 대에서 매듭단추와 같은 형식으로 변화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를 토대로 <그림 2-1>과 같이 도식화로 정리하고 <그림 2-2>와 같이 재현하였는데, 소재는 벽화에 그려진 부드럽게 휘날리는 황색 저고리의 실루엣과 높은 신분(여신)임을 감안할 때 부드러운 견직물류로 추정하여 명주를 사용하였고 문양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온양박물관에 소장된 1302년 조성된 아미타불 불복장에서 출현한 ‘자의’, ‘중의’, ‘상의’, ‘초배삼’(발원문에 이처럼 기록됨)은 모두 웃옷으로 원쪽이 남아있는 ‘상의’와 ‘초배삼<그림 5>’은 여성용 일상복으로 보고 있다. 복식은 시납(施納)자가 착용했던 의상으로 제작 연도는 더 거슬러 올라간다(허홍식 외, 1999). 동일 자료에 대한 선행연구 중 한 편에서는 의복에 기록된 발원문을 감안하여 볼 때 1350년 경(성보문화재연구원, 1997)에 착용되었다고 추정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다른 한 편에서는 1302년(이경자, 2003)으로 추정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14세기(김문자, 1998)로 표기하고 있어 연도에 대한 혼란이 야기된다.

<그림 3>의 아미타불 불복장의 자의(紫衣)는 표상의로 입은 포형의(袍形衣)로서 겉감은 자색 능견, 안감은 자색 명주를 사용하였다(이경자, 2003). 직령의 깊은 교임이 살짝 곡이 진 것을 볼 수 있으며 동정이 달려있고, 앞길이는 110cm, 뒷길이는 133cm로 뒷길이가 앞길이보다 긴 것이 특징이다. 우임의 통수이며,



<그림 2> 12세기 초, 여신상  
둔마리고분벽화.  
거창의 역사와 문화 II, p.16.

<그림 2-1> 12세기 초,  
여신상, 도식화.

<그림 2-2> 12세기 초,  
둔마리 고분벽화.  
<그림 2>의 고종재현작품.

대가 없는 대신 매듭단추가 달려 있다(그림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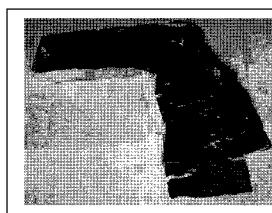
<그림 4>의 아미타불 불복장의 중의(中衣)는 흰색 紗로 지었으며, 이 역시 깃의 끝부분이 자의와 같이 살짝 곡선화 되어있다. 길이와 크기는 자의와 비슷하나, 고대와 깃 나비가 약간 좁으며, 우임에 소매는 통수이고, 자의와 마찬가지로 대(帶)가 없는 대신 매듭단추가 있다(그림 4-1).

<그림 5>의 아미타불복장에서 출현된 ‘초배삼’의 옷깃에 묵서로 ‘腹藏入教是 紗背衫施納宰臣愈弘慎妻李氏’로 써 있는데 이는 ‘불상의 배 안에 넣는 것은 초배삼으로 재상 유홍신의 부인 이씨가 바치다’라는 뜻으로 그 착장자를 알 수 있다. 이는 자색의 紗(초생견)로 지어졌고, 직령의 깃 끝부분이 살짝 곡이 졌으며 여밈이 깊은 중거형인데 저고리의 길이가 56cm로 다른 상의류와 비교하였을 때 짧은 편이다. 이색의 선이 없어지고 옆트임이 생겼다. 한편 소매나비는 37cm, 수구는 41.5cm로 넓은 편이고 전동선에서 소매 쪽으로 사선형태가 아닌 조금 넓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그림 5-1). 화장은 94cm로 지금의 저고리에 비해서 매우 길지만 함께 발굴된 ‘자의’의 128.5cm나 ‘중의’의 142cm 보다 길지 않고 다만 당시의 상의의 착용양식이 손등을 완전히 덮는 정도였으리라 생각된다. 이는 「고려도경」에서 “손에 부채를 들었다 하더라도 손톱을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흔히 絳囊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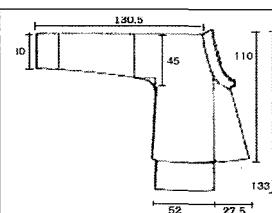
로 이를 덮었다.”(김문자, 1998)고 전해지는 것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허리의 대가 없어지고 고름이 생기는 과정에서 매듭단추를 사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매듭단추는 걸깃의 끝과 안깃 끝에 달았으며, 단추 고리는 단추와 같은 감으로 거드랑 밑에 달려 있다. <그림 5-2>는 위 자료를 근거하여 복원하였다. 고증재현품의 소재는 평직의 소색 생견을 사용하였고 문양은 없다. 봉제법은 1302년 아미타불복장물의 조사 연구에 따라 훌으로 짓고, 옆선은 통솔, 등바대는 흠질로 처리하였다.

<그림 6>의 1321년대 경으로 추측되는 일본 서복사(西福寺)에 소장된 관경서품변상도(觀經序品變相圖) (문명대, 1997)의 시녀상은 저고리 위에 상을 입고, 표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 통일신라시대 복식과 유사한 형태이다. 저고리는 홍색, 녹색, 담황색으로, 직령이며 저고리 길이는 둔부선 정도로 소매가 길고 우임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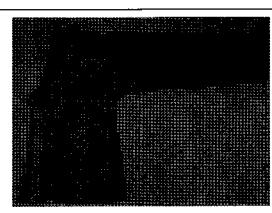
<그림 7>은 1320년대로 추정되는(한국미술연구소, 1996)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이다. 공양물을 가지고 가는 우측 여인은 황색바탕에 금색무늬가 직조된 저고리와 화문(花紋)이 있는 치마를 입고 있다. 저고리 길이가 삼국시대의 둔부선에 많이 짧아져 둔부선과 허리선 중간 정도에 이르고, 소매가 길어 손등을 덮을 정도이며 우임이다. 옆선에 깊은 트임이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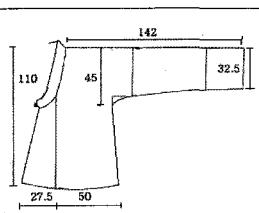
<그림 3> 1300년대, 자의, 아미타불불복장, 은양민속박물관, 고려의 불복장과 염직, p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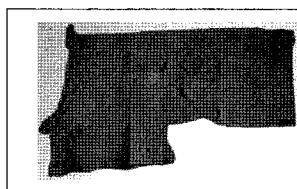
<그림 3-1> 1300년대, 자의 도식화. 1302년 아미타불 복장들의 조사연구, p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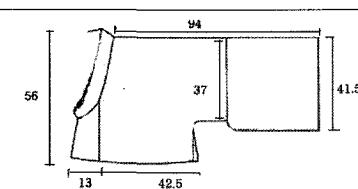
<그림 4> 1300년대, 중의 아미타불불복장, 은양민속박물관, 고려의 불복장과 염직, p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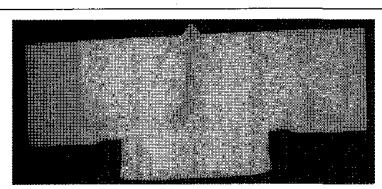
<그림 4-1> 1300년대, 중의, 도식화. 1302년 아미타불 복장들의 조사연구, p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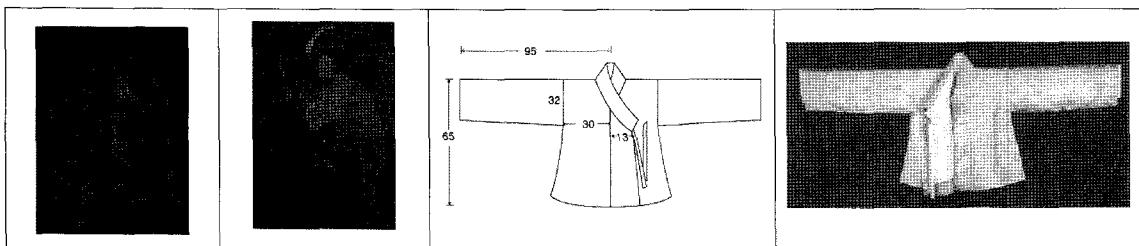
<그림 5> 1300년대, 초배삼, 아미타불복장, 은양민속박물관, 고려의 불복장과 염직, p12.



<그림 5-1> 1300년대, 초배삼, 아미타불복장, 도식화. 1302년 아미타불복장들의 조사연구, p96.



<그림 5-2> 1300년대, 초배삼, 아미타불복장, <그림 5>의 고증재현작품.



<그림 6> 1321년 경, <그림 7> 1320년대,  
관경서품변상도  
일본 서복사  
한국의 미 7, p16.      일본 대덕사  
수월관음도.  
일본 대덕사  
한국의 미 7, p108.

<그림 7-1> 1320년대,  
수월관음도.  
저고리 도식화.

<그림 7-2> 1320년대,  
수월관음도.  
<그림 6>의 고증재현작품.

여밈은 옷고름 형태로 좌측에서 동여 매었다(채금석, 1987). 또한 저고리 안쪽에 흰색의 속저고리가 보이며 겉저고리의 소매보다 더 긴 것으로 보인다(그림 7-1). 이는 실제유물<그림 3>의 자의(128.5cm) 보다 <그림 4>의 중의(142cm)의 소매가 더 좁고 긴 것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상을 통해, 고려시대 저고리는 삼국시대 저고리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삼국~통일신라기까지의 저고리는 둔부선길이의 긴 저고리형에 품은 인체에 비교적 밀착된 수직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둔마리 고분벽화를 보면 통일신라기부터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면서 품은 상대적으로 넓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려시대 저고리는 대부분 장방형의 형태미를 이룬다. 길이가 길면 품은 것은 길이가 짧으면 품은 것은 디자인 측면에서 조화로운 조형이며 이는 인체 활동에도 기능성을 더해주는 합리적인 사고의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둔부선 길이 저고리의 품과 길이의 비례는 대강 3:5의 황금비례<그림 17>를 보여주며, 둔부-허리선의 중간 길이의 저고리는 약 1:1의 비례미 <그림 18>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인체의 적합성과 기능성을 위해 진동선이 옆선보다 바깥쪽에 위치한 듯이 보이도록 겨드랑이 및 옆선을 파준 디테일의 창조는 우리 선조들의 과학적 사고에 입각한 놀라운 미적 감각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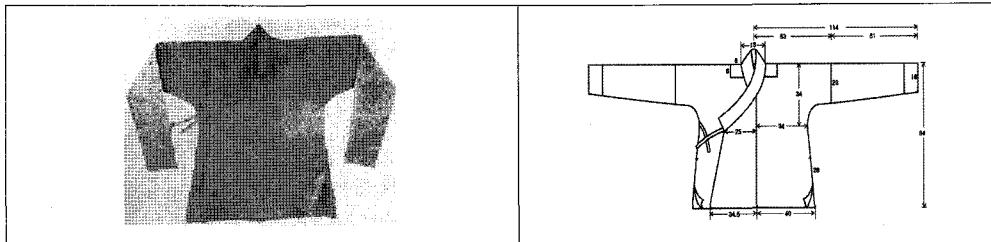
이때 여밈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본래의 앞길에 여분의 천을 덧댄 것이 오늘날의 셀프로드로 추정된다. 이러한 셀프로드으로 인해 도련선 밑단까지 이어지던 삼국~통일신라기의 령금(가선)의 길이가 흉부선까지로 짧아졌는데, 이는 조선시대 목둘레를 감싸는 옷깃의 전신으로 추정되며, 직령에서 미세한 곡선으로 변화되었음을 자료를 통해 감지할 수 있다. 또

한 저고리의 여밈으로는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흉부선으로 짧아진 옷깃의 끝부분에 대(帶) 대신 매듭단추를 단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출토된 불복장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고대의 폭은 10cm 정도로 대를 매는 둔부선길이 저고리의 고대보다 확연히 좁아졌다. 이는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고, 폭이 넓어지면서 여밈이 깊은 중거형으로 변화됨에 따라 신체 적합성을 고려하여 목둘레를 몸에 보다 밀착시키기 위해 좁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여밈의 방향은 좌·우임이 혼용되었던 삼국시대와는 달리 1300년대를 전후한 고려시대 유물에서 보여지는 임제는 우임이 암도적이다. 이로써 조선시대 저고리가 우임으로 정착되었음을 감안할 때, 고려시대는 우리 저고리의 임제가 우임으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의 시기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7-2>는 수월관음도의 귀족 여인의 저고리를 고증재현한 작품이다. 높은 신분임을 감안하여 밝은 황색의 견직물을 사용하였고, 자료의 확대 관찰을 통해 금색의 화문을 밝혀내고 이를 문양에 적용하였다.

이어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에서 나온 복식 유물의 연대는 함께 발굴된 요선철릭의 발원문에 기록된 송부개의 인적사항에 따라 추정하여 보면 1300년대 중반의 의복으로 추측되는데, 총 11점의 발굴 유물 가운데 저고리(衣)류는 4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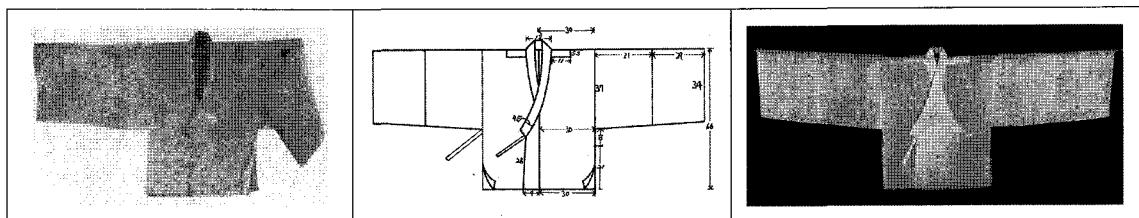
그 중 <그림 8>의 장수의(長袖衣)는 소색의 세포(細布)로 만든 저고리로서 깃의 곡선이 급하게 진 형태이며, 저고리 길이가 84cm로 일반 포제보다 짧은데 비하여 소매는 손을 덮는 길이로 장수이다. 우임이고 끈고름이 달려있으며 옆선에 트임이 있는 것이 특징으로 고대는 또한 좁다(그림 8-1).

또한 <그림 9>의 모시적삼(毛施赤衫)은 소색 백저포로 지었으며 직령의 깃이 살짝 등글려진 목판깃이



<그림 8> 1350년대,  
금동비로자나불 장수의, 해인사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유물의 연구, p.6.

<그림 8-1> 1350년대,  
금동비로자나불 장수의, 도식화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유물의 연구, p.169.



<그림 9> 1300년대,  
금동비로자나불 모시적삼, 해인사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유물의  
연구, p.6.

<그림 9-1> 1300년대,  
금동비로자나불 모시적삼, 도식화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유물의  
연구, p.170.

<그림 9-2> 1300년대,  
금동비로자나불 모시적삼,  
<그림 9>의 고증재현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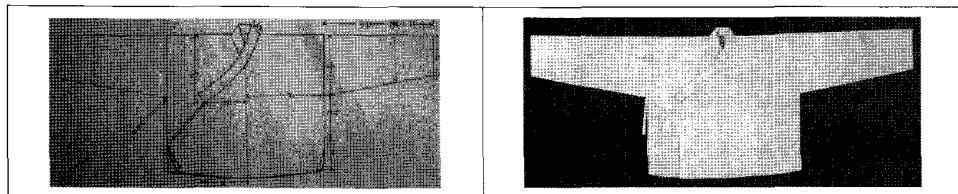
달려있고 길이는 66cm 정도로 짧고, 우임이며 소매의 진동에서 소매부리 쪽으로 갈수록 아주 미세하게 좁아지는 사선형이다. 여밈 처리는 끈고름 흔적은 없고 우측겨드랑이에 길이 실가타이 풀어져 있는 상태로 불어있는 것으로 보아 그 곳에 끈고름이 달려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9-1). 이에 <그림 9-2>와 같이 고증재현하였다. 소재는 소색의 모시를 사용하였고,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유물 조사보고서(성보문화재연구원, 1997)에 따라 치수를 참고하여 소매는 통솔로, 나머지 시접은 가진세를 이용한 훌솔로 지었으며, 수구 끝과 단의 가장자리는 맡아서 공글렸다. 이 역시 <그림 8>과 <그림 9>의 유사 자료를 놓고 한편에서는 모식적삼(백영자, 최해율, 2004), 다른 한편에서는 장수의(이경자, 2003)로 각각 표기하고 있어 명칭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가장 먼저 연구된 자료에 근거하여 표기하였다.

<그림 10>의 유물은 생모시적 삼으로 소개되었는데, 실물사진은 없으나 정확한 치수(김문자, 1998)가 표기되어 있다. 이를 도식화로 재현한 길이는 65cm, 옆선이 일직선으로 옆트임이 있는 것으로 소개되었다. 여밖은 유물의 오른쪽 겸드랑이 아래쪽과 걸깃 쪽에

끈고름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그림 10-1>을 고증재현하였다. 고증재현작품 소재는 소색의 생모시를 사용하였고,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유물 조사보고서에 따라 소매는 통솔로, 나머는 모두 홀솔로 지었으며, 옆트임 가장자리는 가진세를 그대로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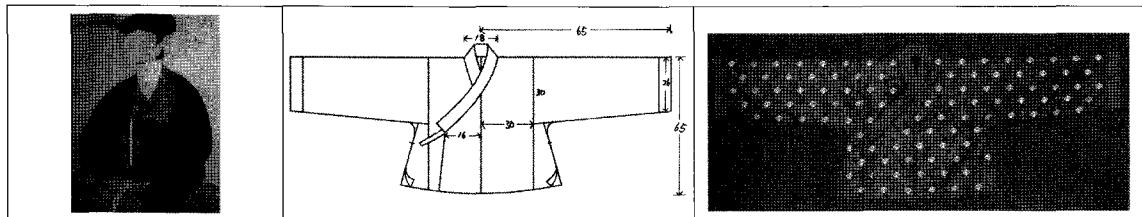
<그림 11>의 조바위에 발대 후수를 한 조반(趙半) (1341~1401) 부인의 초상화를 살펴보면 포(袍) 속에 진한 쑥색 비단 저고리를 착용했는데 깃과 수구는 용문(龍紋)의 자색비단을 대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회장저고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김문자, 1998). 둔부를 살짝 덮는 길이로 보이며 우임으로 짚게 여며지는 중거형이고, 소매는 통이 비교적 넓은 통수이며 공수를 하고 있어 허리에 대를 매었는지, 끈고름을 달았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길이로 보아 대를 맨 것으로는 안 보인다. 이로써 <그림 11-1>의 도식화로 정리하고, 용문의 견직물을 사용하여 <그림 11-2>와 같이 고증재현하였다.

<그림 12>의 하연(河演)(1376~1453) 부인상의 저고리는 황색 바탕에 청록색 무늬로 깃 위에 흰색의 동정이 달려 있으며, 깃 형태 3겹이 겹쳐 있는 것으로 보아 삼작 저고리를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속에



<그림 10> 1350년대, 금동비로자나불, 생모시적삼, 해인사, 도식화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유물의 연구, p.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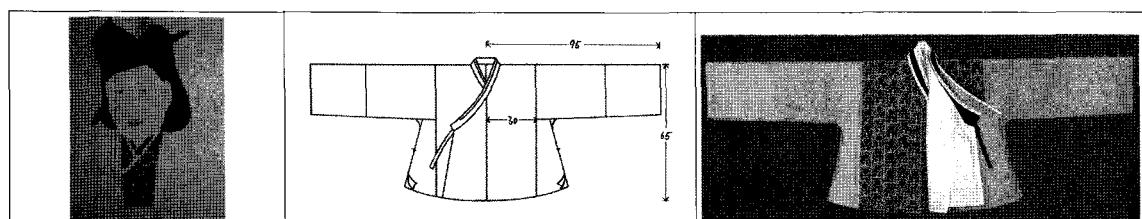
<그림 10-1> 1350년대, 금동비로자나불 생모시적삼,  
<그림 10>의 고증재현작품.



<그림 11> 1341~1401,  
조반부인상, 국립중앙박물관  
우리저고리 2000년, p. 84.

<그림 11-1> 1341~1401,  
조반부인상, 저고리도식화.

<그림 11-2> 1341~1401,  
조반부인상, <그림 11>의 고증재현작품.



<그림 12> 1396~1453,  
하연부인상, 일본천리대  
우리저고리 2000년, p. 84.

<그림 12-1> 1396~1453,  
하연부인상, 저고리 도식화.

<그림 12-2> 1396~1453, 하연부인상,  
<그림 12>의 고증재현작품.

자주색 깃 저고리, 그 안에는 内衣의 속저고리를 착용한 것으로 추정하여<그림 12-1>의 도식화를 작성하고 <그림 12-2>로 복원하였다. 속저고리의 색상은 겹정색으로 흰색 동정이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고리의 길이는 알 수 없으나 저고리 위에 상을 착용한 것으로 보아 둔부를 약간 덮는 정도의 길이로 추측되고, 우임이며 허리에 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끈고름을 달거나 매듭단추를 달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저고리의 소재는 도상을 통해 높은 신분으로 추정되어 황색의 견직물을 사용하였고 도상의 확대분석에 따라 청록색의 기하학문양을 넣었다.

역시 1350년경으로 추정되는 <그림 13>의 미륵하생 경변상도에서 볼 수 있는 농부들의 저고리는 흰색, 적색, 흑색으로 직령이며 둔부선의 길이에, 우임이며 소매는 통수인 것으로 보여지며 옆선에 트임이 있는 것

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고려후기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삼국시대의 저고리와 같이 허리에 대를 맨 것으로 보아 일반 서민층에서는 삼국시대의 저고리가 그대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고려시대 저고리는 둔부선 길이에 대를 매고 옆선을 트거나 트지 않은 형, 또는 둔부선과 허리선의 중간 길이에 대가 없어지고 단추나 고름이 달린형이 공존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토대로 <그림 13-1>의 도식화로 정리하고 <그림 13-2>와 같이 고증재현하였다. 소재는 하층계급임을 고려하여 문양이 없는 거친 포를 사용하였다.

<그림 14>의 방배동 출토 목우상은 고려 말로 연대가 추정되며 남녀 목우 5점 중 2점은 서민여인의 모습으로 감지된다. 이는 원 시대의 西安湖廣義圖 출토 토용의 여복과 유사한데, 목우상 저고리는 소색으

로 목판깃의 중거형이며 둔부를 덮을 만큼 길고 깃과 수구에 이색선이 보이지 않는다. 우임이며 소매는 직 배래의 착수형태이다. 앞모습은 공수를 하고 있어 가려져서 보이지 않으나 뒷모습에서 허리띠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박경자, 1990) 작은 옷고름이나 매듭단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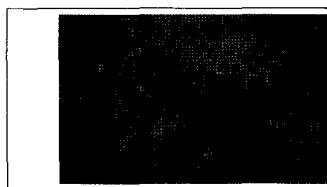
또한 고려말로 추정되는 <그림 15>의 미국 박물관 소재 고려부인으로 추정되는 여인상의 저고리는 녹색으로 깃이 완연한 곡진 형태의 중거형이며 둔부를 약간 덮는 길이로 역시 짧다. 우임에 통수이며 끈고름이 달려있고 깃과 수구에 염주문이 찍혀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토대로 <그림 15-1>의 도식화로 추정하고 <그림 15-2>와 같이 고증재현하였는데, 소재는 높은 신분임을 감안하여 견직물류를 사용하였으며, 도상을 참고하여 깃과 수구끝에 염주문을 넣었다. <그림 16>은 밀양 청도면 고법리에서 발굴된 고려 말의 문신 송은(松隱) 박익(朴翊) 선생(1332~1398)의 벽화묘에 그려진 供養人物圖로 조선초기로 이어진 고려말기 저고리 착용모습이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형태가 비교적 잘 보이는 3명의 인물들은 모두 우임에 둔부선 길이의 저고리를 입고 있다. 직령의 깃이 달려있으며 담홍색 저고리에는 셋이 달려있고, 허리에는 대를 맨 것

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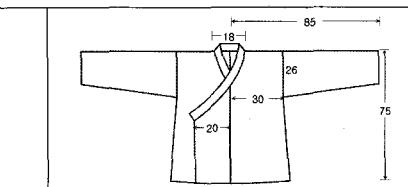
이상을 통해 고려시대 저고리 형태는 둔부선 길이에 대를 매는 형<그림 16>,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고 품이 넓어지는 중거형<그림 17>의 2가지 형이 공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표 1>로 정리하였다.

### 3) 고려시대 저고리의 기본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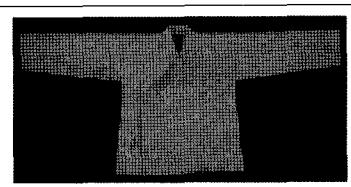
이상 벽화, 불복장유물, 불화, 초상화 등을 통해 살펴 본 고려시대의 저고리는 삼국시대~통일신라기의 착수장유(窄袖長襦)<그림 16>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시대가 흘러갈수록 저고리 품이 넉넉하면서 중후한 형태로 발전되었으며 1300년대를 전후하여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는 등 우리 복식 역사상 큰 변화기라 할 수 있다. 불복장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초척삼과 모시적삼 그리고 생모시적삼은 길이가 둔부선과 허리선의 중간 정도로 짧아지고, 직령에서 여밈이 깊은 重褶形으로 변했으며, 이에 따라 가선이 없어지고 옷깃의 형태가 나타나며, 옆트임이 생겼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밈 방법에 있어서도 고대로부터 고려 중엽까지 있었던 대가 없어지고 1300년대를 전후(채금석, 1987)하여 아주 짧은 고름이나 매듭단추를 사용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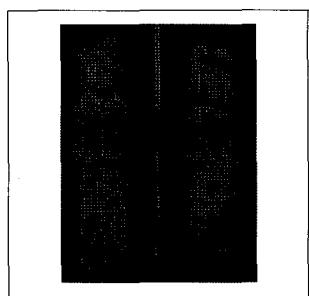
<그림 13> 1350년 경, 미륵하생경  
변상도, 일본 천왕원소장 고려불화  
한국의 미 7, p.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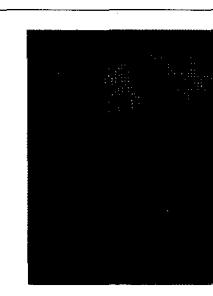
<그림 13-1> 1350년 경,  
미륵하생경 변상도, 저고리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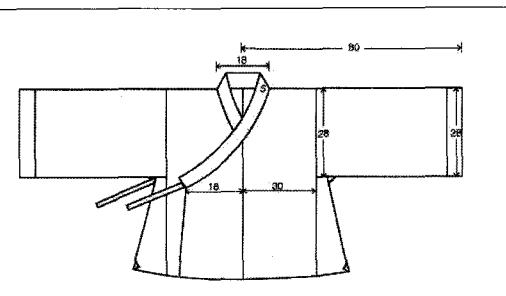
<그림 13-2> 1350년 경,  
미륵하생경 변상도,  
<그림 13>의 고증재현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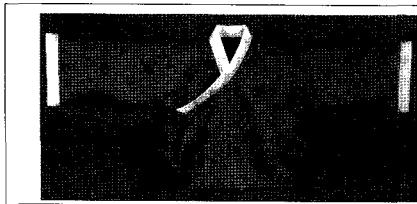
<그림 14> 1300년대 말,  
목우상, 서울 방배동 출토  
우리저고리 2000년, p.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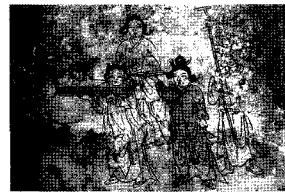
<그림 15> 1300년대 말,  
고려부인상, 미국 박물관  
우리저고리 2000년, p.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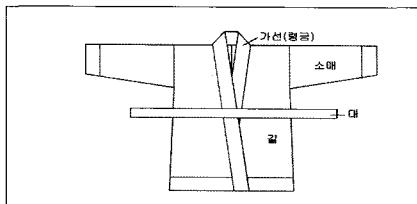
<그림 15-1> 고려부인상  
저고리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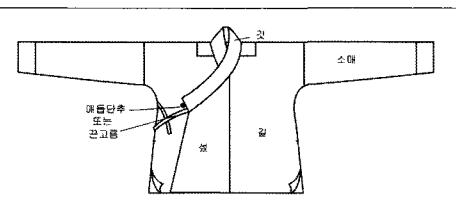
<그림 15-2> 1300년대 말, 고려부인상,  
<그림 15>의 고증재현작품.



<그림 16> 고려말~조선전기 밀양고법리  
박의벽화묘 밀양고법리벽화, p. 95.



<그림 17> 삼국시대 저고리



<그림 18> 고려시대 저고리

또한 하연 부인 초상화의 저고리와 수월관음도 여인상의 저고리에서 동정이 달려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온양박물관에 소장된 아미타불복장물 중 ‘자의’에서 실제로 동정이 달려 있는 경우가 있어 고려시대에 저고리에 동정을 달기 시작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 고려시대 유물을 통해 본 저고리의 기본구조는 깃, 길, 셀, 소매, 고름(단추)로 구성된다(그림 18).

#### (1) 깃과 동정

저고리나 웃옷의 목에 둘러대어 앞으로 여미는 부분까지를 가리키는 말로 ‘웃깃’이라는(김영숙, 1998) 용어가 있다. 삼국시대의 목둘레에서 도련선 밀단까지 이어지는 령금(가선)이 고려시대에 들어서서 흥부선 근처에서 끊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고 품이 넓어져 여밈의 폭이 깊어지는 증거형으로 변화됨에 따라 본래의 길에 여분의 천이 더해지면서 목둘레를 지나서 앞길 도련으로 이어지던 령금이 도련선까지 이어지지 않고 목둘레의 흥부선에서 끊어져 ‘깃’으로 변화된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고려시대 불복장유물을 통해보면 고대의 폭이 전시대보다 훨씬 좁은 10~12cm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증거형으로 인해 저고리 품이 넓어지므로 목둘레를 목주변에 보다 밀착시키기 위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깃나비는 대략 4~5cm이며 여밈폭이 깊어짐에 따라 깃선이 곡선화 되었고 깃을 달았을 때 깃이 평면화되지 않고 목 주위가 입체적으로 떠서 목을 감싸

안는 형태가 되므로 옷을 입었을 때 우아하고 맵시 있는 의장미를 자아낸다.

즉, 삼국시대 저고리의 이색 령금(가선)(A)이 고려시대에 깃의 형태(A')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9, 20). 또한 일부 초상화에서는 동정도 보인다.

#### (2) 길이

“길”은 몸판·저고리·두루마기 따위의 웃옷의 주장이 되는 넓은 큰 폭으로 옷의 깃·소매를 제외한 상반신을 싸는 부분을 말한다.

#### ① 길이

고려시대 저고리 길이는 둔부선 길이와 둔부선과 허리선 중간 정도 길이의 2가지 형이 공존했으며 이는 치마 위에 저고리를 착용하고 있는 도상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 ② 여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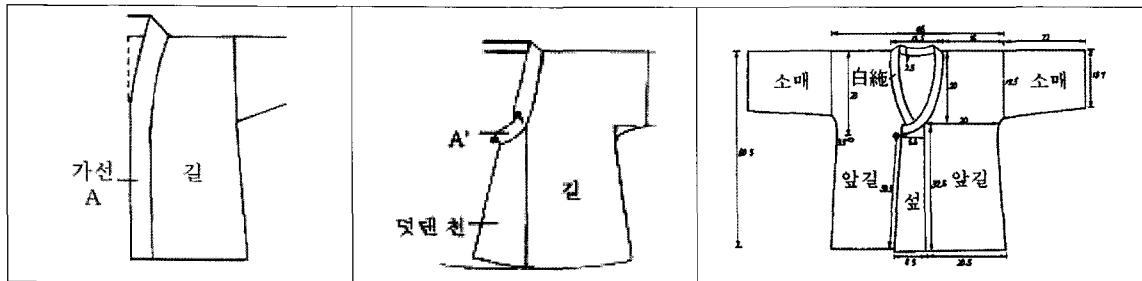
여밈은 직령교입이 많고 증거형으로 여밈폭이 깊다. 길이가 상대시대에 비해 짧아져 둔부선 위로 올라옴으로써 여밈 수단으로 대(帶) 대신 끈고름이나 매듭단추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당 영향에 의한 통일 신라 상류층의 저고리 위에 치마를 착용하는 습용 방식의 변화가 고려에 그대로 전해졌고 이에 따라 끈고름이나 매듭이 자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③ 임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려시대는 식별이 불분명한 유물을 제외하고는 우임이 대부분으로, 1300년대를 전후하여 나타난 출토유물이나 그 이후, 도상을 통해서 보면 모두 우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

&lt;표 1&gt; 고려시대 저고리의 디자인 구성요소

유 물	디자인 구성요소	형 태						소 재
		깃	기선	등장	걸 이	입 체	설	
이미터불 불복장	둔마리 고분벽화의 연주하는 여신상	직령	無	無	둔부선과 허리선 중간	우입으로 추정	·	·
	자 의 증 의	국진 직령	無	有	앞: 110cm 뒷: 133cm	우입	有	통수 매듭단추
	초비삼	·	無	無	117cm	우입	有	통수 매듭단추
관경서풀 변상도의 시녀상	직령	無	無	둔부선과 허리선 중간	우입	·	·	자색 능건
	수월관음도	·	無	無	둔부선과 허리선 중간	좌입	·	·
금동비로자나 불복장복식 해인사	장수의 모시적삼	국진 직령	無	無	84cm	우입	有	통수 끈고름
	조반의 부인상	국진 직령	無	無	둔부선과 허리선 중간	우입	有	끈고름으로 추정
미륵하생경 변상도	하연의 부인상	직령	無	有	·	우입	·	·
	봉배동 출토 목우상 中 서민 여성 2점	직령	無	無	둔부선	우입	·	·
미국박물관의 고려부인상	직령	無	無	둔부선과 허리선 중간	우입	·	통수	·
	박익 벽화 묘 인물 3인	직령	無	·	둔부선	우입	有	끈고름 소색 납종제



&lt;그림 19&gt; 삼국시대 저고리 → &lt;그림 20&gt; 고려시대 저고리

<그림 21> 8세기, 布衫, 정창원  
정창원의 복식과 그 제작국, p84.

서 좌우임이 혼용되던 삼국시대의 저고리가 고려시대로 접어들면서 우임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것으로 사료된다.

### (3) 셋

“셋”은 저고리나 두루마기의 앞길에 덧대어 겹쳐지는 부분을 말한다. 삼국시대 저고리(품:길이=약 3:5)에서는 저고리 구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실물 자료가 없어 셋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지만 고려시대의 복식 유물에서 셋이 보이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고 품이 넉넉한 증거형(품:길이=약 1:1)으로 변화됨에 따라 본래의 길에 여밈의 깊이를 더하기 위한 여분의 천이 덧대어 지었을 것이고, 이 덧댄 천이 셋으로 발전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20). 이 셋의 발생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우리나라의 복식유물은 존재하지 않지만 신라인의 의복과 거의 동일할 것으로 추정되는(이춘계, 1995) 8세기 일본 정창원(正倉院)의 복식류<그림 21>에 셋의 형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이전부터 이미 저고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셋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셋의 발생은 직물의 폭과도 상관성이 있는데, 민길자(2000)는 고려시대의 포폭을 약 50cm라고 결론 지었으며, 아미타불복장 유물 중 양쪽 식서가 남아있는 직물의 폭은 35.5cm~62cm(허홍식 외, 1999)까지 발견되었다. 또한,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유물의 마직물 포폭은 31cm~36.5cm, 견직물의 포폭은 요선철릭의 요선부위 안단에 사용된 35cm 폭의梢와 계측이 불가능했던 안고름을 제외하고는 네 점이 모두 50~54cm(성보문화재연구원, 1997)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시의 직물의 폭이 30~60cm내외를 크게 넘지 않았을 것이라 사료되며, 이 외에도 부산대 소장 어린이철릭, 문수사소장 백저포, 안동대박물관 소장 직령포, 상원사소장 적삼 등의 출토 복식의 이

음폭이 모두 위의 포폭의 범위를 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도 합당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上記 출토 저고리는 모두 길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이음선이 저고리의 중심선과 일치함으로써 안정감을 이루고 있는데, 길이가 짧아지고 폭이 넓어짐으로써 약 1:1의 비례미가 강조된 고려시대 저고리에 있어 여밈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여분의 천을 덧댄 셋의 사용은 필연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넓어진 폭으로 인한 활동성을 고려하여 겨드랑이 밑을 완만한 그자로 괴 준 것은 기능미를 고려한 과학적 발상이라 사료된다.

### (4) 소매

소매 형태는 유물과 도상을 비교해 보면 배래가 좁은 통수와 넓은 소매인 대수가 있는데 아미타불복장 유물의 초배삼 소매의 경우와 같이 진동보다 소매 부리가 미세하게 넓은형도 있으나 실물자료 대부분이 통수형이거나, 진동보다 소매 부리쪽이 약간 좁은 착수 사선형이 대부분으로 이는 삼국시대의 소매구조와 별반 차이가 없으나 아미타불복장유물처럼 소매통이 넓게 변화된 것도 있다. 또한 소매가 대부분 2-3등분 되어있는데 이는 당시 옷감의 폭이 좁은데서 연유한 것이라 이해된다.

특히, 고려시대는 저고리 폭이 어깨선을 지나 연장되어 있으며 소매 길이는 대부분 손등을 덮는 길이이다.

### (5) 대 · 단추 · 고름

삼국시대의 대는 저고리의 여밈을 고정시켜서 옷이 벗겨지지 않기 위한 기능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고려시대에 와서는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대가 더 이상 기능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대신 관풀을 구별하는 수단으로 변모하였다. 유물들을 살펴본 결과 고려시대에는 저고리 길이의 변화로 인하여 여밈의 수단으로 대 대신 매듭단추나 끈고름을 단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둔부선 길이의 저고리는

&lt;표 2&gt; 고려시대 저고리의 세부구조

세부구조	분 류	
1. 깃과 동정	깃 - 약간 곡이 진 직령~곡거형, 동정이 보이기 시작	
2. 길	길이	둔부선 길이, 둔부선과 허리선 중간 길이
	임제	우임
3. 셀	덧댄 천	
4. 소매	통수, 대수, 장수	
5. 대 · 단추 · 고름	둔부선 - 대, 둔부 · 허리 중간 길이 - 끈고름 · 매듭단추	

여전히 대를 매었다.

#### (6) 색

고려의 왕실과 상급자 복식은 당시에 중국적인 영향에 따라 당, 송, 원의 복색과 관련이 있으나 서민의 옷은 삼국시대와 같은 소(白)색을 주로 착용하였다. 고려인의 의복색은 붉은색 계통인 자색, 비색, 다흥색을 귀한 색으로 보았으며 녹색은 하급자의 색이며 조색 역시 천한 색으로 사용되었다. 황색은 왕의 조복에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조선시대만큼 귀하게 취급 되지는 않은 듯하고 오히려 미혼녀에게 착용되었다. 소색은 일반 백성의 의복색으로 전통적인 민족복색의 의미를 갖는다.

#### (7) 소재

1302년 조성된 아미타불에서 출현한 7종의 직물인 ‘능(綾)’, ‘라(羅)’, ‘초(綃)’, ‘겸(縑)’, ‘주(紬)’, ‘기(綺)’, ‘마(麻)’는 그동안 각종 문헌에 등장하는 염직물들의 직조방법 대한 이해를 높여주었다(허홍식 외, 1999).

‘능’은 능 조직으로 짠 직물을 말하는데 출현 염직물 중에서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 염직물로 밀도가 높고 질기며 광택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무늬가 있는 비단을 일컫는 ‘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초’는 누에에서 추출한 실로 짠 안개와 같이 얇고 가벼운 천을 말하는데, 「고려사」에 “綃子 염직물은 엄중하게 稅를 거둘 것을 啓를 올렸다”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 고가의 염직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겸’은 『설문』에 실을 나란히 하여 짠 직물로 설명되어 있으며 치밀한 조직을 특징으로 한다. ‘주’는 굵은 실로 제작한 견직물, ‘기’는 문양을 나타내는 얇고 가벼운 견포를 말한다.

또한 ‘마’는 모시풀의 줄기껍질을 가공하여 제작한 직물로, 마직물인 모시는苧布라고도 하며 습기를 흡수하고 발산함이 빨라 여름철 옷감으로 사용하던 전통직물이다. 『고려도경』에 따르면 송나라 사신 서궁

은 “백저포(마직물)는 그 깨끗함이 백옥과 같고, 왕과 신하들이 즐겨 입었다”고 극찬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공민왕 12년에 목면이 전래되어 면화의 생산이 가능해졌다(백영자, 최해율, 2004).

### III. 결 론

본 연구는 희소한 통일신라기 벽화, 고려시대의 벽화, 불복장유물 및 불화, 인물초상화를 바탕으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변화된 고려시대의 저고리의 세부 구조의 발생과 변화 과정을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시대 저고리형은 둔부선 길이에 대를 매는 형, 둔부선~허리선의 중간길이에 매듭단추나 끈고름을 다는 형 2종류가 공존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고려시대 저고리의 세부구조는 깃(동정), 길, 셀, 소매, 단추 · 고름으로 분류된다.

셋째, 저고리의 길이는 둔부를 약간 덮는 길이로, 삼국시대보다 약간 짧아졌으며, 목둘레선에서 도련선 밀단까지 이어지는 령금의 가선이 사라진 점이 특징이다. 이는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고 품이 넓은 중거형으로 변화됨에 따라 깃선이 곡선화 되어 령금이 가슴선에서 끊어져 깃으로 발전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깃에는 동정을 다는 경우가 있었으며 특히, 직령의 목판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끝부분이 살짝 곡선처리가 되면서 깃이 입체적으로 떠서 목을 감싸 안는 형태임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고대 나비가 10~12cm로 삼국시대보다 현저히 좁으며, 이 역시 중거형으로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고 품이 넓어진 데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여밈은 1300년대를 전후한 출토유물, 도상을 참고할 때 우임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아 좌우임이 혼용되었던 삼국시대의 저고리가 고려 1300년대를 전후하여 우임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고려시대의 둔마리 고분벽화를 통해 보면 저고리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품은 몸을 충분히 감쌀 수 있도록 넓어짐으로써 본래의 길에 여분의 덧댄 천이 셋으로 발전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한 통일신라기에 이미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섯째, 소매 모양은 소매통이 넓고 손등을 완전히 덮는 정도의 길이의 대수와 소매통이 좁고 긴 통수, 그리고 손을 완전히 가릴 만큼 긴 장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소매가 2단~3단으로 나뉘어 있는 것은 당시 옷감의 폭이 넓지 않은데서 연유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동선이 어깨선을 지나 상완선으로 연장되어 전동과 옆선이 직선을 이루던 구조와 차이를 보인다.

일곱째, 저고리 여밈의 수단으로 옷고름이나 매듭 단추를 옷에 단 것이 주목되는데 이는 통일신라기 이후 저고리 길이 변화에 따라 자연발생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 참고문헌

- 김동욱. (1979). 韓國服飾史研究. 서울: 아세아문화사.
- 김문숙, 이순원. (2001). 고려시대 일반복식의 명칭에 관한 연구. *복식*, 51(2), 65-78.
- 김문자. (1998). 高麗時代 여인들의 儒·裳의 형태에 관한研究. *복식*, 38, 73-82.
- 김영숙. (1998). 한국복식문화사전. 서울: 미술문화.
- 문명대. (1997). 한국의 미 7-고려불화. 서울: 중앙일보사.
- 민길자. (2000). 한국 전통직물사 연구. 서울: 도서출판 한림원.
- 박경자. (1990). 한국전통복식의 특징연구-일반복식의 구성과 착장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연구4*.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1-40.
- 백영자. (1993). 한국의 복식. 서울: 경춘사.
- 백영자, 최해율. (2004). 한국복식의 역사. 서울: 경춘사.
- 성보문화재단. (1991). 1302년 아미타불부장유물의 조사연구. 충남: 온양민속박물관편.
- 성보문화재연구원. (1997).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부장유물의 연구. 양산: 성보문화재연구원.
- 심봉금. (2002). 밀양고법리벽화. 부산: 동아대학교박물관.
- 유희경, 김문자. (1998).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 유희경. (1974).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이경자. (1978). 木偶像의 服飾考察. *복식*, 2, 23-34.
- 이경자. (2003). 우리옷의 傳統 樣式.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춘계. (1995). 正倉院의 복식과 그 제작구. 서울: 일신사.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5). 거창의 역사와 문화II. 경남·서울: 거창군·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 임영미. (1996). 한국의 복식문화(I). 서울: 경춘사.
- 채금석. (1987). 佛畫 속에 표현된 服飾의 構造와 形態 研究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금석. (1995). 불화속에 표현된 복식의 구조와 형태연구. *복식*, 23, 5-23.
- 채금석. (2005). 저고리 세부구조의 발생과 그 형태 변화에 대한 연구. *복식*, 55(1), 113-128.
- 채금석. (2006). 우리저고리 2000년.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 한국미술연구소. (1996). 고려시대의 불화-해설편. 서울: 시공사.
- 허홍식, 남권희, 김영숙, 권순정. (1999). 高麗의 佛腹藏과 染織. 서울: 계몽사.
- 杉本正年. (1979). 東洋服裝史論叢-古代編. 동경: 文化出版社.
- Chae, K. S., Ku, J. Y., & Cho, J. Y. (2005). A study on the specific structures and the form of the Goguryeo costume. *Proceedings II of the 2005 Seoul International Clothing & Textiles Conference, Seoul Korea*, 902.